

# 화가 김용익 "감개무량하면서도 되레 불안해요"

November 23, 2016 | 이향휘 기자

칠순에 '땡땡이'그림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화가 김용익

## “감개무량하면서도 되레 불안해요”

너무 행복하면 불안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뭔가 불길한 일이 생겨 이 행복을 방해할 것 같은 느낌 말이다. 칠순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는 김용익 작가 역시 그렇다. 22일 서울 삼성로 국제갤러리에서 간담회를 연 그는 “한두 달 전부터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다. 감개무량하지만 느닷없이 온 행운이라 불안하기도 하다”고 고백했다.

나이 칠십·팔십에 이르러서야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가 최근 드물지만은 않다. 하종현 김기린 이승택 등도 그러했고 박서보나 정상화의 작품값은 최근 말 그대로 수직상승해 점당 10억원을 넘는다.

김용익 역시 10년 전 화랑에서 전시회를 연 적은 있지만 메이저 화랑에서의 개인전은 생애 처음이다. 작품 판매와는 하도 거리가 멀었던 삶이라 언젠가는 상업적으로 인정받으리라는 꿈도 선볼리 꿀 수도 없었다. 그러다 올해 하반기부터 런던과 서울, 상하이에서 열린 아트페어에서 완판에 가까운 정도로 작품이 팔렸으며 12월에는 미국 마이애미 아트비절에도 나간다. 내년 5월에는 뉴욕에서 개인전도 예정돼 있다.

그의 대표작은 원형을 반복적으로 캔버스 위에 그리는 이른바 ‘땡



국제갤러리서 신작 30여점 발표  
내달 美아트비절, 내년봄 뉴욕서 개인전  
“땡땡이는 작가들의 영원한 유행”

땡이 작업’이다. 구멍을 뚫은 시트지를 캔버스에 올려놓고 작업하는 그는 “땡땡이는 작가들의 영원한 유행”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의 약동 데미안 허스트나 일본의 거장 쿠마사 야요이 역시 땡땡이 작업으로 유명하다. 그의 ‘땡땡이’는 어떤 의미일까. “원은 그리기가 쉽기도 하고 완벽한 형태를 의미해

요. 처음에는 뭔가를 그려놓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원을 그렸어요. 원과 원 사이에는 다 가리지 못한 뭔가가 남아 있지요. 완벽하게 다 가리지 못하고, 못 미치는 유보적인 상황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1990년대 작업했던 땡땡이는 모더니즘적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위였다면 최근 작업한 땡땡이

는 보다 장식적이고 유패하다”고 비교했다. ‘창작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 ‘편집의 시대’가 왔기에 과거 작품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김용익은 1970년대 단색화 박사보 사단의 막내 작가로 활동하다 1980년대에는 민중미술 계열 작가들과 어울렸다. 2000년대에는 공공미술 활동을 하기도 했다. “실존적인 삶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어디에도 속하지는 못했죠.” 다소 종잡을 수 없는 그의 캐릭터는 고등학교 이과 출신에 서울대 농대를 다니다 뒤늦게 홍대 서양화과를 다니기 시작한 것만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시장에는 최근 2년간 작업한 ‘모더니즘의 묵시록’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 ‘유토피아’ 등 다섯 가지 연작 30여 점이 걸려 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작품 기준도 독특하다. “좋은 작품은 만드는 데 힘과 돈이 적게 들고 운반하기 쉬워야 해요. 좁아져서거나 더러워져도 괜찮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죠. 허허.” 실제 벽에 걸린 작품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린 것도 상당수지만 낡고 퇴색한 느낌과 세월의 흔적, 먼지 등이 배어 있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02) 3210-9821 이향휘 기자